P62

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되지 않은 양측성 거대 신혈관근지방종의 파열에 관한 증례 1예

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신종호 · 방기태 · 정진욱

Spontaneous Rupture of Bilateral Giant Angiomyolipoma of Kidney not Associated with Tuberous Sclerosis: A Case Report

Jong Ho Shin, Ki Tae Bang, Jin Uk Jeong

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

배 경: 신혈관지방종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80%,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된 경우가 20%이나,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80에서 90%가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.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하여 발생한 신혈관지방종의 파열의 증례는 국내에도 보고된 바가 있다. 하지만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되지 않았으나 양측성으로 발생한 신혈관근지방종의 파열에 관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.

증 례: 75세 여자환자가 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측복통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진통제 투여 받아 복용 중 증상 호전 없이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 하였다. 환자는 위에 발생한 위장관간질종양으로 약 6년전 타병원에서 위절제술 시행 받은 병력 있었으며, 수술 전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우측신장에 약 8×5×10 cm의 단일 신혈관지방종, 좌측신장에 최대 약 4 cm의 다수의 신혈관지방종 발견되었으나 특이 증상 없어 간헐적으로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시행하며 경과 관찰 중인 병력 있는 자로, 신혈관지방종 진단 당시, 피지선종, 간질 및 정신박약의 병력 등 결절성경화증의 임상적 증거 보이지 않았고 결절성경화증의 가족력 또한 없었다. 환자는 급성병색 보였으며 심박동수 110회의 동성빈맥 보였으나 기타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. 검사실 소견상 혈색소가 9.4로 감소되어 있었다.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9.6×7.6×11.8 cm의 파열된 우측 신혈관지방종 및 종양 내,피막 하,신주변에서 혈종관찰 되었으며, 좌측신장에서 최대 4.7 cm인 다수의 신혈관지방종 관찰되었으나 파열은 없었다. 치료로서 우측신장의 대한 선택적 경동맥 신색전술을 시행한 후, 혈색소수치 상승 및 증상호전 확인하여 제 11병일 째 퇴원 하였다.

결 론: 저자들은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되지 않은 양측성 신혈관근지방종의 파열에 관한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Key Words: 신혈관근지방종, 위장관간질종양, 결절성경화증
Angiomyolipoma, Tuberous sclerosis